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2, June 2021, pp.216~239.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2.216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입사장(入絲匠)의 직무 유형과 역할

김세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rine0422@hanmail.net

국 문 초 록

공예품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속 재료를 감입하는 시문 기법인 입사(入絲)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생활용품, 의례품, 관청의 공적 기물에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으로 구성된 관장(官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입사장은 경공장에 편입되어 왕실과 중앙관청의 공예품 입사시문을 담당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입사장에 대한 기록은 관영수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관영수공업에서의 입사장의 배속 관청은 공조와 상의원, 군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앞의 두 소속 장인의 도감 차출이 있다. 입사공예품을 사용하는 관청과 군영에 입사장을 배치하고, 제작 마감 기한이 촉박해 평소보다 세밀한 분업과 협업이 전개되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을 입사장, 은입사장으로 나누어 공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제작 상황과 보유 기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장인을 배치해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체제의 운영은 장인의 손기술로 모든 공예품을 제작해야 했던 근대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논문은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장인의 역할과 직무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능의 특성과 재료, 인력 수급 등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관영수공업 정책의 틀 안에서 장인의 기술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공예품 구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의궤에 기록된 재료와 도구, 소수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관장과 사장의 기록을 더해 기술 문화를 분석한다면 조선시대 공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입사(入絲), 입사장(入絲匠), 은입사장(銀入絲匠), 경공장(京工匠),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

투고일자 2021. 03. 31. ● **심사일자** 2021. 04. 27. ● **게재확정일자** 2021. 05. 0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Ⅰ. 머리말

관영수공업은 관(官)의 주도로 운영되는 다양한 목적의 수공업을 통칭한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왕실과 중앙관청, 지방관청, 군대 등에서 사용되는 공예품 제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엔진이 사용되는 기계공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조선시대 수공업은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의 제작을 담당하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공예품의 원활한 수급과 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匠人)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왕실과 관청, 군대 등에서 사용하는 의례품을 포함한 각종 기물의 제작과 수급을 담당하는 관영수공업은 더욱 그러했다. 관영수공업을 담당하는 장인을 관청 소속 관장(官匠)으로 편입시켰다. 고려시대에도 관장이 있었지만 조선보다 그 규모가 작았다. 조선의 관장(官匠)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 129종목, 지방의 외공장(外工匠) 27종목으로 구성되었다.[1] 균일하고 정교한 품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관장의 종목[匠色]은 다루는 재료와 제작 공정에 따른 기술 등을 반영해 매우 세분화되었고 분업과 협업을 적극 활용하였다.[2] 민간의 사장(私匠) 작업에서도 공예품을 제작할 때 작업 공정이나 기술이 연계되는 장색 간의 협업이 확인되지만 관영수공업에 비해 세분화되지 않았다. 공예품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속 재료를 감입하는 시문 기법인 입사(入絲)를 담당하는 입사장(入絲匠)도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의 한 분야로 법전에 명문화되어 관영수공업의 장인 중 한 종목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활동한 입사장에 대한 기록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앙관청 소속 입사장, 두 번째는 17세기 이후 도성(都城)을 방위하기 위해 임진왜란 이후 설치한 군대인 중앙 5군영 소속 입사 기술을 지닌 장인의 활동, 세 번째는 왕실 공역을 위해 권설도감에 차출된 입사장의 명단과 작업 관련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 유형은 입사장뿐 아니라 조선시대 관장에 속해 있던 다른 종목들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확인된다. 특히 제한된 기간 내에 의례에 필요한 많은 수의 공예품을 동시에 제작해야 했던 권설도감에 관한 기록인 의궤에서는 법전에 명문화된 장색뿐 아니라 분업을 위해 법전보다 세분화시킨 장색명과 장인이 사용한 도구, 재료, 완성된 공예품의 상세 내용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관영수공업에 국한된 기록이지만 이 기록들은 입사장을 포함한 당시 장인들이 제작한 공예품의 종류와 용도, 제작 체제 등 조선시대 공예와 제작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 내 장인의 직무 유형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당시 장인들의 세부 역할과 기술을 파악하는 데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단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 전반의 제도와 장인, 관련 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학계의 공예사를 중심으로 선학들의 선구적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3] 현재 관영수공업의 세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종목의 종류와 수가 워낙 많고, 이에 따른 고유 기술과 세부 내용이 각기 달라 분야에 따른 연구 성과의

1 조선의 경공장, 외공장 제도가 처음 명문화된 『경국대전』에는 경공장 129종 2841명, 외공장 27종 3740명이 확인된다. 이후 편찬된 법전에서는 추가된 소량의 종목으로 인원수가 소폭 증가한다.

2 최공호, 2018,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 47, p.129.

3 장경희, 2013,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최공호, 1992, 「조선 초기의 공예정책과 그 이념」, 『미술사학연구』 194·195, 한국미술사학회; 장경희, 1998,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경희, 1999, 「조선 후기 흉례도감의 장인 연구」, 『미술사논단』 8, 한국미술연구소; 최응천, 2004, 「공예와 장인: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장인 연구」, 『미술사학연구』 241, 한국미술사학회; 장경희, 2007, 「조선 후기 산릉도감의 장인 연구: 왕릉 정자각과 석의물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장경희, 2011, 「조선 후기 왕실공예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사학보』 25; 최공호, 2018,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등이 있다.

편차가 존재한다. 입사장에 대한 연구는 현재 입사장의 기법과 기종, 문양과 관련된 성과가 주를 이룬다. 반면 입사장이 소속되었던 관청이나 장인의 유형 및 기술을 토대로 실제 전개했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4]

본 논문은 관영수공업에 종사했던 입사장의 편제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해지는 입사공예품은 많으나 제작에 참여했던 입사장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 중 상대적으로 관영수공업에 종사한 입사장은 제반 내용이 의궤와 실록 등 관찬 사료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추후 조선시대 민간에서 활동했던 입사장과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입사장의 기술 문화에 대한 상세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조선시대 관청 소속 입사장의 역할

1. 조선의 관영수공업과 법전에 기록된 입사장의 편제 흐름

조선시대 관영수공업 내 입사장(入絲匠)의 직무와 편제는 조선의 관영수공업 구축 목적과 이념, 이와 관련된 시행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조선의 관영수공업 내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 운영 체제인 관영공장(官營工匠) 체제는 고려까지 점진적으로 구축된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고려(918~1392)는 통일신라(676~935)와 통일신라의 제도를 일부 손질한 태봉(910~918)의 체제를 토대로 이전보다 체계화된 제도를 구축했다. 고려의 수공업 관련 관청과 관청 소속 장인의 분야와 세부 종목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職官)과 『고려사(高麗史)』 식화지 녹봉조(食貨志 祿俸條)를 통해 일부 확인된다.[5]

조선은 개국 초부터 국가 주도 공예품 제작 체제와 시설을 갖추고, 공조 산하의 각종 공예 관련 관청을 확대 개편하여 업무 및 제작 활동을 분업시켰다. 그리고 장인들의 기술 전문성에 따라 직능(職能)을 세분화하여 관청의 업무와 장인 기술의 특성에 맞춰 배속시켰다. 때에 따라 각 관청에는 감조관(監造官)을 임명해 제작 과정을 총괄하고 정교한 품질의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했다.[6]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한양의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왕실 및 관청의 물품을 제작하는 경공장(京工匠)과, 각 지방의 특산품 및 산출되는 재료를 고려하여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지방의 소비품 및 진상품을 제작하는 외공장(外工匠)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이들을 공장안(工匠案)에 등록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경공장, 외공장으로 이원화된 체제는 수공예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작과 수급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였다. 조선은 공예산업 전반의 국가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장인의 종목과 관청을 세분화하는 등 고려에서 이어받은 관영수공업 체제 전반을 손질해 한층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분화해 운영했으며 장인 간 분업 규모도 크게 확장했다.[7]

4 최응천, 2016, 『한눈에 보는 입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유진, 1981, 「조선조 금속상감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혜강, 1995, 「조선시대 포목상감 문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혜강, 2000, 「조선시대 포목상감 제작기법에 관하여」, 『역사와 실학』 20, 역사실학회; 이선진, 2013, 「조선 후기 철제 입사 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진, 2015, 「조선 후기 철제 입사 공예품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김선정, 2015, 「조선시대 은입사 기법의 현대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박수지, 2017, 「쪼음입사의 기원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린, 2017, 「조선시대 입사장의 역할과 작업 범주의 재해석」, 『무형유산』 3, 국립무형유산원; 김세린, 2019b,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세린, 2019, 「조선 중-후기 왕실용 금속제 입사공예품의 제작도구: 의궤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등이 있다.

5 『三國史記』 職官 上에서는 장인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설치된 관청명과 관청 및 장인을 관리하던 상위 관청, 업무, 설치 연보 및 구성원 등이 일부 확인된다. 반면 『高麗史』 食貨志의 경우 관청 및 소속 장인 분야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최공호, 2018,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 47, pp.127~128.

7 최공호, 2018, 앞의 논문, p.129.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예품 제작을 담당했다. 아울러 의례에 조선의 정치적 이념과 고려에서 계승한 전통문화를 반영한 표상을 공예품에 정밀하게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예품의 기본적 제작 구조가 정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의를 거쳐 공예품 제작을 시작하는 발주 → 이를 구체화하는 실무 행정 → 제작 목적을 반영한 표상과 조형을 구체화하여 도안을 제작하는 도화서의 화원이나 장인 → 기물의 제작을 담당한 장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제를 갖췄다.

조선의 이러한 관영수공업 체제 정립은 공예를 국초부터 국가의 중요 기간산업으로 인식한 조선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었다. 공예품의 공적 제작 체제에 내포된 목적과 이념은 조선 초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공전(工典) 총론과 금옥석목공피전식등공(金玉石木攻皮塼埴等工)조에서 확인된다. 총론은 공예와 장인이 갖는 기본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8] 금옥석목공피전식등공조에서는 예시를 들어 국가 전반에서 소비되는 기물을 제작하는 장인과 공예 기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의를 역설했다.[9] 여기에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수공업의 국가적 관리와 통제의 당위성도 내포하고 있다. 1394년(태조 3) 정도전의 주도로 편찬된『조선경국전』은 조선 개국 후 유교를 근간으로 한 조선의 통치 이념과 기본 제도를 제시한 법전으로 이후『경제육전(經濟六典)』(1397) 및『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의 모본이 되었다.[10] 이후 고종 2년(1865)에 편찬된『대전회통(大典會通)』까지『조선경국전』이념 및 공예 제도의 근간이 유지되어 관영수공업 체제에 반영되었다. 고려시대까지 관장의 영역에 없었던 입사장의 조선 관영수공업 편입에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전에 명문화된 공식 명칭인 입사장(入絲匠)은 고려시대 유물인 〈지정28년명 표훈사향완〉(1368)에서 처음 등장한다.[11]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향완의 명문에서는 입사장 외에도 누수(縷手), 누공(縷工) 등 실을 감입하는 장인을 의미하는 장인명이 함께 확인된다. 입사장이라는 명칭이 법전에 공식화된 이유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시대 입사공예품의 명문과 문헌을 종합해볼 때 13세기 초까지 동장(銅匠), 적동장(赤銅匠) 등 기물의 바탕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속공예품의 제작자 장인명이 13세기 전후로 재료와 기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어 명문이나 장인의 종목명에 점진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2] 기법명은 이보다 이른 시기의 입사 기술, 즉 장식재를 기물에 넣는다는 입사 기술의 시문 근간을 담은 함은(含銀)이 〈대정17년명 용흥사향완〉(1177)[13]에서 확인된다. 또 입사(入絲)는 입사장(入絲匠)이 시문된 유물보다 100년가량 이른 시기에 제작된 〈정우2년명 자효사향완〉(1214)[14] 명문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고려의 입사 향완 명문은 입사 기술과 장인이 하나의 분야로 구체화·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15] 하지만

8 『三峯集』卷14, 朝鮮經國典 下, 工典, 總序. “六官之目. 工居一焉. 書曰. 百工惟時. 又曰. 不作無益害有益…”.

9 『三峯集』卷14, 朝鮮經國典 下, 工典, 金玉石木攻皮塼埴等工. “百工之技. 雖其卑且賤者. 其於國家之用. 實爲緊要. 皆不可廢也. 小者不可枚擧. 姑擧其大者言之. 兵器若介冑劍戟. 器皿若錡釜鼎鐿. 苟無金工. 何以鍛鍊鎔範. … 何以雕琢磨礱以成其器哉. 有石於斯. 若無攻石之工. 何以樹碑碣. 何以築砌礎哉. 有木於彼. 若無攻木之工. 何以立宅舍. 何以作舟車哉. 不寧惟是. 其佗攻皮之工. 塼埴之工. 絲枲之工. 繪畫之工. 皆切於用. 不可缺焉”.

10 조선 개국 후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 규범은『주례』의 6전 체제를 모델로 하되, 여기에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주례』에서는 재상·과거·병농일치 제도의 이상을 빌려왔다. 한나라·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府兵)·군현·부세·서리(胥吏)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했다(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11 “…入絲匠徐勉造…”, 〈지정28년명 표훈사향완〉(1368).

12 김세린, 2019a,「고려시대 입사공예품의 장인과 기술」,『한국중세고고학』5, 한국중세고고학회, pp.76~78.

13 “…鑄成靑銅含銀香.一副…”, 〈대정17년명 용흥사향완〉(1177).

14 “…入絲靑銅香垸壹入重陵斤拾兩造納□”, 〈정우2년명 자효사향완〉(1214).

15 김세린, 2019a, 앞의 논문, p.79.

입사장이 명문화된 이후에도 입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거푸집으로 통용되나 '끼우다'라는 뜻으로 입사에 함께 사용한 鑲,[16] 縷, 鏤, 嵌 등 고려에서 계승된 용어와 조선에서 등장한 용어를 혼용했다.[17]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 편찬 이전에는 입사장이라는 구체적 명칭이 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진상품 관련 기록에서 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입사공예품 관련 기록이 소수 확인된다. 세종 8년(1426) 명 사신이 조선에 입국했을 때 직접 조정에 마구 제작을 요청해 중국으로 가져간 기록에 등장하는 입사등자(入絲鐙子)로 추정되는 감철등자(嵌鐵鐙子)와 제작 장인을 요구하는 기록,[18] 세종 11년(1429) 명으로 보낸 진상품 물목에 포함된 금입사창(嵌金尖子),[19] 단종 3년(1455) 명에 보낸 삽화감도금은호노호(鈒花嵌鍍金銀葫蘆壺)[20]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특히 감철(嵌鐵)과 감금(嵌金)은 동시기 중국에서 주로 사용한 입사의 명칭으로, 재료를 감입한다는 감(嵌)을 앞에 넣고 감 뒤에 재료나 문양을 붙여 사용했다. 『원사(元史)』 여복지(輿服志) 등 여러 문헌에서 용례가 확인된다.[21] 이러한 내용들은 입사장이 경공장으로 법전에 명문화되기 이전에 관영수공업 내에서 이미 제작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입사를 지칭하는 기법명이 입사뿐 아니라 고려에서 전승된 명칭, 동시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명칭이 혼용되었음을 보여준다.[22]

이처럼 입사장은 이미 장색 자체는 존재했지만 편제는 동장(銅匠) 등과 같이 금속을 다루는 장인 안에서 입사 시문을 담당했다가 제작 속도의 효율성을 위한 분업과 균일하고 정교한 품질의 공예품 제작을 위해 관장(官匠)의 장색을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장(官匠)으로서 입사장이 확인되지 않지만 입사공예품 제작이 확인되는 『고려사』와 조선 14~15세기 실록, 입사장이 처음 명문화된 법전인 『경국대전』(1485), 『경국대전』 편찬 이후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다.[23] 입사장이 관에 편제되지는 않았지만 활발한 소비가 있었고, 결국 필요에 의해 관장에 편입하는 일련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경국

16 鑲은 鑲嵌 또는 뒤에 감입 재료를 붙여 鑲銀 등의 형태로 『임원경제지』, 『경도잡지』를 비롯한 조선 후기 문인들의 저서에서 鏤와 함께 다수 확인된다. 嵌은 銀嵌 등으로 조선 초부터 『朝鮮王朝實錄』에서 확인되며, 17세기 이후 의궤에서도 용례가 확인된다.

17 김세린, 2019a, 앞의 논문, p.224.

18 『世宗實錄』 卷31, 세종 8년(1426) 3월 15일. "尹鳳謂通事金乙賢曰: "嵌鉄鐙子, 吾欲親監造作進獻, 前日已請匠人, 何至今不送?" 上聞之曰: "雖非進獻, 使臣之請, 不可不從, 況稱進獻乎? 其卽遣之". 원전에는 嵌鉄로 기록되어 있는데, 『朝鮮王朝實錄』 및 의궤를 살펴보면 철을 표현할 때 正鐵, 正鉄 등 鉄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鐵의 異稱임이 파악된다.

19 『世宗實錄』 卷43 세종 11년(1429) 1월 27일. "命知申事鄭欽之, 贈使臣毛衣冠及衣一襲, 靴套苧麻布各十匹, 人蔘十五斤, 滿花方席四張, 滿花寢席二張, 石燈盞一事, 頭目十八人, 各衣靴及麻布二匹. 使臣進段子, 羅紗, 白細毛子, 大綃各一匹, 錦護膝, 錦囊, 靑畫白磁鍾, 白磁畫鍾, 玄雲油烟墨, 紅象毛馬飾,畫鎭簫, 畫鎭鞘柄, 畫鎭雙刀子, 銀節, 具象牙鞘柄, 三刀子, 雙刀子, 猪, 羊各一口, 回贈麻布二十九匹, 苧布九匹. 進中宮段子, 羅紗, 大綃各一匹, 緜臙脂五百, 粉櫃二, 針五百, 象牙鞘柄三刀子, 回贈麻布十匹, 苧布五匹. 進世子宮段子, 羅紗, 綃各一匹, 紅象毛馬飾, 油烟墨, 靑玉柄刀子, 嵌金尖子, 具象牙鞘柄三刀子, 回贈麻布十匹. 苧布八匹.…".

20 『端宗實錄』 卷14, 단종 3년(1455) 5월 21일. "高黼遣頭目繆洪, 進沈香七斤八兩, 金廂紅寶石帽頂一, 鈒花嵌鍍金銀葫蘆壺一, 全白暗花膝襴綾子五匹".

21 『元史』, 「輿服」1, 金輅. "… 金嵌鎭行龍十, 金嵌鎭螭頭三, 金嵌鎭龍頭二…"; 『格古要論』 卷6, 鎭鐵條. "外面起花鍍金. 裏面嵌銀回回字者". 이 외에도 다수의 중국 문헌에서 입사를 지칭하는 '嵌+재료(바탕재 또는 바탕재+장식재) 또는 문양' 용례가 확인된다. 이는 철로 된 바탕재에 감입했다 또는 기물에 문양을 감입했다 또는 기물에 장식재인 금 등을 감입했다 등 기물에 입사 장식을 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2 이러한 입사 기법명의 혼용은 입사장이 명문화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효종이 1654년 장군 이완(李浣, 1602~1674)에게 투구를 하사한 효종실록 기록에도 '감금은어갑주(嵌金銀御甲冑)'로 기록되어 있다. 『孝宗實錄』 卷12, 효종 5년(1654) 5월 26일. "丁亥/上下敎曰: 閱武之擧在邇, 經營戎務, 悉在大將, 宜有寵異之典, 激勵將士. 以嵌金銀御甲冑, 白羽大箭, 角弓筒, 賜李浣". 이 투구는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완장군투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23 김세린, 2019a, 「고려시대 입사공예품의 장인과 기술」, 『한국중세고고학』 5, 한국중세고고학회. 13세기 이후 고려는 왕실과 사원, 상류층을 중심으로 입사공예품의 제작이 성행했지만 입사장이 조선과 같이 관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반면 향완의 명문과 문헌 기록을 통해 금속공예품의 제작과 장식을 담당했던 동장(銅匠), 적동장(赤銅匠), 누장(鏤匠) 등의 제작자 명칭과 기법명이 14세기 이후 입사(入絲), 입사장(入絲匠)으로 세분화되는 과정을 보인다.

대전』에 등재된 관장인 129종목의 경공장, 27종의 외공장에 입사장이 공식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입사장은 조선시대 법전에서 중앙관청 소속 장인인 경공장(京工匠)으로만 확인된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공조(工曹)에 2인, 공조 하위 아문인 상의원(尙衣院)에 4인 등 총 6인의 경공장이 편제되었다.[24] 이후 『대전속록(大典續錄)』(1491), 숙종 32년 편찬한 『전록통고(典錄通考)』(1706), 정조 9년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1785), 고종 2년 편찬된 『대전회통(大典會通)』(1865)까지 『경국대전』의 편제를 근간으로 인원수에서만 약간의 변동이 있다.[25]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법전 및 법령집에 기록된 입사장의 편제와 인원

법전명	소속 관청(인원)	
경국대전(1476)	공조(2)	상의원(4)
대전속록(1491)[26]	공조(4)	상의원(7)
전록통고(1706)[27]	공조(2)	상의원(4)
속대전(1746)[28]	기존과 동일(수정된 편제만 기록)	
대전통편(1785)[29]	공조(2)	상의원(4)
대전회통(1865)[30]	공조(2)	상의원(4)

17~20세기 초 의궤와 문헌에서도 관장인 입사장은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경공장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관장으로 편제된 입사장은 조선 말까지 시대상에 따라 일부 와해는 있었지만 경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 관청 소속 입사장의 편제와 역할은 『대전회통』의 실무 법규 보강을 위해 고종 3년(1866)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의 상의원 내 각종 금속 기물 제작 및 장식을 담당한 금은색에서 확인된다.

표 2 『육전조례』(1866)의 상의원 소속 장인 업무 분장

구분	소속 장인
의대색(衣帶色)	紗帽匠, 襦笠匠, 草笠匠, 網巾匠, 凉太匠, 帽子匠, 多繪匠, 都多益匠, 針線匠, 洗踏匠, 擣鍊匠, 擣砧匠, 草染匠, 紅染匠, 靑染匠, 甕匠
교자색(轎子色)	弓匠, 矢人, 弓弦匠, 鍊匠, 冶匠, 刀子匠, 小木匠, 木手, 漆匠, 磨造匠, 彫刻匠, 裨貼匠, 環刀匠, 針匠, 風物匠, 鑄匠, 豆錫匠, 銅匠, 鍮匠, 鈴匠
금은색(金銀色)	口禾 匠, 金箔匠, 銀匠, 泥匠, 都目介匠, 都結兒匠, 裹皮匠, 玉匠, 花兒匠, 入絲匠, 生皮匠, 箭匠, 錚匠, 毛衣匠, 毛冠匠, 鞾鞋匠, 鞾鞋匠, 熊皮匠, 斜皮匠, 樺皮入染匠, 熟皮匠, 獐皮匠, 弓袋匠
직조색(織造色)	綾羅匠, 筏匠, 紡織匠, 合絲匠, 草匠, 裁金匠, 練絲匠

아울러 법전에는 없지만 의궤에서 소속이 확인되는 일부 입사장 중 2건의 관상감(觀象監), 내수사(內需司) 소속 입사장이 17세기 말~18세기 숙종·영조대 도감에서 보인다.[31] <표 1>과 같이 이 시기에 편찬된 법전에 입사장

24 입사장의 소속 관청과 인원은 『경국대전』과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 기록이 동일하다.

25 영조 22년에 편찬한 『속대전』(1746)에는 입사와 관련해서 입사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에 대한 금제만 기록되어 있다.

26 『大典續錄』 工曹 工匠條. "本曹草笠匠·紗帽匠·金箔匠·鍮匠·入絲匠各二,…則無役良人擇定"; 『大典續錄』 工曹 工匠條, 尙衣院紗帽匠. "人絲匠·小木匠各三,…並良人公賤中擇定".『대전속록』은 『경국대전』 시행 이후 법령 간 충돌을 수정·증감한 것인데 工曹 工匠條의 경우 양인이나 천인 중 장인을 택해서 기존의 인원에서 충원하는 인원만 기록했다. 이에 공조와 상의원 입사장이 각 2, 3인씩 충원되었다. 이후 『전록통고』에서는 기존의 인원으로 환원된다.

27 『典錄通考』 工典 工匠條, 續錄, 工曹. "本曹, 草笠匠·紗帽匠·金箔匠·鍮匠·入絲匠各二,…"; 『典錄通考』 工典 工匠條, 京工匠 大典, 尙衣院. "…和匠八, 銀匠八, 金箔匠四, 裹皮匠四, 靴匠十, 鞾鞋匠八, 熟皮匠八, 花兒匠四, 斜皮匠四, 毛衣匠八, 氈匠八, 入絲匠四, 毛冠匠二,…".

28 『속대전』 공전 공장조에는 기존의 『경국대전』과 『전록통고』의 편제에서 변동이 있는 옹점장(甕店匠), 수철장(水鐵匠), 사기장(沙器匠) 등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기록했다.

29 『大典通編』 工典 京工匠條 本曹. "…咊匠四, 銀匠八, 金箔匠二, 裹皮匠二, 靴匠六, 鞾鞋匠六, 熟皮匠十, 花兒匠二, 斜皮匠四, 氈匠四, 入絲匠二, 漆匠十, 豆錫匠四,…"; 『大典通編』 工典 京工匠條 尙衣院. "熟皮匠八, 花兒匠四, 斜皮匠四, 毛衣匠八, 氈匠八, 入絲匠四, 毛冠匠二, 絲金匠四, 漆匠八, 豆錫匠四".

30 『大典會通』 公典 京工匠條, 京工匠定額, 本曹. "…入絲匠二, 漆匠十, 豆錫匠四, 鑄匠二十, 螺鈿匠二, 鍮匠八, 裨貼匠二, 針匠二, 鏡匠二,…"; 『大典會通』 公典 京工匠條, 京工匠定額, 尙衣院. "…入絲匠四, 毛冠匠二, 絲金匠四, 漆匠八, 豆錫匠四, 磨造匠四, 弓弦匠四,…".

31 『장렬왕후부묘도감의궤』(1691), 박성건(관상감);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1740), 유사한(내수사).

은 여전히 공조와 상의원에만 편제가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속기 제작 및 세공을 담당하는 조각장(雕刻匠)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입사장을 해당 관청에 편제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관상감이나 내수사 소속 금속을 다루는 다른 장색 장인이지만 도감 공역에서 입사장 인력이 부족해 입사 기술을 지닌 금속공예 관련 장인을 도감에서만 입사장으로 편입시켰을 가능성이다. Ⅳ장에서 서술하겠지만 도감은 짧은 시간 내에 의례에 필요한 모든 공예품을 완성해야 하는 특성상 도감 내에서만 장인의 보유 기술에 따라 장색 변경 또는 직무 교차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2. 입사장의 소속 관청과 역할

입사장은 기본적으로 공예품의 표면에 금속을 감입해 문양이나 명문, 표상을 표현하는 입사시문 작업이 직무의 중심이었다. 이와 함께 이미 제작된 입사공예품의 보수를 담당했다.

관장인 입사장은 중앙의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속해 직무를 수행했다. 때에 따라 의례 및 공역을 치르기 위해 설치하는 권설도감(權設都監, 이하 '도감')이 설치되면 차출되었다. 그리고 도감 업무 중 본래 속한 관청에서 입사시문이 필요할 경우 도감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대체할 장인이 들어갈 때까지만 작업을 계속해야 할 정도로 소속 관청의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다. 이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켜진 원칙이지만, 양난과 전후 수습이 진행된 광해군~인조 연간인 16~17세기 중엽에는 유동적으로 적용되었다. 당시 전란으로 많은 장인들이 죽고 이탈한 상황이어서 관청과 도감 모두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입사장도 마찬가지여서 상의원의 입사장 안인남(安仁男, 추정 활동 시기: 1621~1645)[32]의 사례를 보면 1645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장례를 위한 예장도감(禮葬都監)에 차출되었을 때 상의원에서도 입사시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원래라면 상의원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감의 인력 부족과 상황의 시급함을 고려해 도감 입사 공역을 서둘러 끝내고 복귀시킬 정도였다.[33] 하지만 전후(戰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되어 있는 관청 직무를 기본으로 수행해야 했다. 관청 내 입사장의 직무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공조의 속사(屬司)와 상의원이다.

1) 공조와 속사

입사장이 속해 있던 관청을 살펴보면 우선 2인이 속해 있던 공조는『경국대전』에 산과 하천, 장공인, 토목공사, 도자기 및 야금 등과 관련된 정사를 담당하던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조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공조에 직접 속한 영조사(營造司), 공야사(攻冶司), 산택사(山澤司)로 구성된 3개의 속사(屬司)와 산하 관청에 해당하는 상의원, 제용감(濟用監), 사옹원(司饔院) 등의 하위 아문을 두었다.

속사는 태종 5년(1405) 처음 확인된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기 근대식 직제의 실시와 함께 공부가 공무아문

32 추정 활동 시기는 의궤에서 처음 등장하는 시기를 상한선으로, 마지막 확인되는 시기를 하한선으로 해 설정했다. 안인남의 활동은『광해군존숭도감의궤』(1621),『선조의인왕후공성왕후존호도감의궤』(1621),『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1627),『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1638),『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1645),『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1645)에서 확인된다.

33 『承政院日記』 91冊, 인조 23년(1645) 5월 23일. "都監啓曰, 自前客使入館, 則各色工匠, 來待館外, 凡有所求, 火急應副, 得以無事. 今者工匠, 盡屬於禮葬等諸都監, 該官, 束手罔知所爲矣。其中入絲匠尙方, 只有安仁男一人, 今方赴役於禮葬都監, 而護行將, 督令入現, 極爲悶迫. 聞禮葬都監入絲之役, 不過數日當完云, 客行過後, 亦可及措, 姑爲移送, 而磨造匠一名, 亦令半日借送, 何如? 傳曰, 依啓". 본 기사에 나오는 尙衣院 入絲匠 安仁男은 오랜 기간 상의원에서 입사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의궤에서는『광해군존숭도감의궤』(1621),『선조대왕의인왕후존호도감의궤』(1621),『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1627),『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1638),『효종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1645),『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1645)에서 입사장으로 제작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적어도 24년 이상 상의원 입사장으로 활동했음이 확인된다.

표 3 조선시대 공조의 속사 구성과 소속된 추정 장색[34]

관청명	직무	소속된 추정 장색(인원수)
영조사 (營造司)	관공서의 청사와 가옥·토목 공사·피혁·모포 등의 공역 관장[35]	裹皮匠(10), 斜皮匠(4), 熟皮匠(10), 氈匠(4), 漆匠(10), 銅匠(4), 周皮匠(4), 冶匠(2), 雕刻匠(2)
산택사 (山澤司)	농업과 임업, 수산업, 광업, 어염, 조운, 둔전 등의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36]	銀匠(8), 螺鈿匠(2), 竹匠(2), 水鐵匠(30戶)[37]
공야사 (攻冶司)	**각종 수공예품, 귀금속과 보석류, 금속 용기 및 도자기, 기와 등의 제작과 도량형 관련 업무 관장**[38]	草笠匠(8), 紗帽匠(2), 都多盆匠(2), 多繪匠(2), 網巾匠(2), 帽子匠(6), 甕匠(13), 口禾 匠(4), 銀匠(8), 金箔匠(2), 花兒匠(2), 靴匠(6), 鞍鞋匠(6), 入絲匠(2), 漆匠(10), 豆錫匠(4), 鑄匠(20), 螺鈿匠(2), 鍮匠(8), 褙貼匠(2), 針匠(2), 鏡匠(2), 雕刻匠(2), 銅匠(4), 汗致匠(2), 鞍籠匠(2), 看多介匠(2), 筆匠(8), 竹匠(2), 鞦骨匠(2), 水鐵匠(30戶), 印匠(2), 冶匠(2), 珠匠(2), 鞾甫老匠(2), 每緝匠(2), 鞍子匠(10), 於赤匠(4), 黏匠(2), 木梳匠(2), 梳省匠(2), 筒介匠(2), 貼扇匠(4), 表筒匠(2), 秤子匠(2), 圓扇匠(2), 竹梳匠(2), 針線匠(10), 草染匠(6), 木纓匠(4)

(工務衙門)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3개의 속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조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이를 전문화·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속사가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속사에서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공역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하위 아문에서 이를 담당하게 한 후 총괄 관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물을 짓거나 재료 자체를 운용하는 등 공역 및 업무의 규모가 큰 영조사나 산택사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설치 당시인 1405년(태종 5)의 기록을 토대로 속사의 업무와 공조에 소속된 장공인을 다시 『경국대전』 경공장에 편입된 129개의 장공인 분야를 직능으로 분류해 속사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경국대전』에 공조로 편입된 입사장 2인은 공야사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속사제와 공조 소속 입사장의 활동이 고종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갑오개혁(1894)기 관제 개편 때까지 공조 소속 입사장은 공야사에서 머물면서 공조에서 제작되는 각종 공예품의 입사 작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의원

경공장 입사장 4인이 속해 있던 상의원은 고려에서 계승된 기관으로 『경국대전』에 왕실의 의복 및 왕이 사용하는 기물을 제작·관리하고 왕실의 재화(寶貨)와 공예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39] 조선 초 공조의 하위 아문으로 설치된 상의원은 고려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고려~조선 초 왕에게 지필연묵(紙筆硯墨)을 올리고 관련 물품을 제작하던 서방색(書房色; 奉書局)도 상의원에 편입되어 왕실에서 사용하는 공예품 전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관청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서방색은 원 간섭기 관직명 및 장인의 명칭에 사용되던 '-색(色)'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체적인 설치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14세기 전후로 설치돼 왕이 사용하던 문방구류의 제작 및 공급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0] 왕실의 생활공예품을 다뤘던 만큼 입사공예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관청 중 하나이다. 서방색은

34 본 표에서 은장, 나전장 등 광업, 어업, 기타 원료 채굴 및 채취와 가공에 직접적으로 간여했던 장인은 산택사와 공야사에 중복해 넣었다.

35 『太宗實錄』 卷9, 태종 5년(1405) 3월 1일. "營造司, 掌宮室, 城池, 公廨, 屋宇, 土木, 工役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36 『太宗實錄』 卷9, 태종 5년(1405) 3월 1일. "山澤司, 掌山澤, 津梁, 苑囿, 種植草木, 取伐柴炭, 木石, 街巷, 堤堰, 船楫, 漕運, 碾磑, 屯田, 魚鹽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37 수철장은 철의 채굴 시 철의 종류 감별 및 가공을 담당해 인원을 나누어 양쪽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철장을 비롯해 인력이 많이 드는 일부 분야는 공방 혹은 여기에 참여하는 家戶로 인원을 정했다. 수철장은 가공하는 철의 규모 및 생산되는 세부 철의 종류에 따라 공조 내에서도 大冶, 中冶, 小冶로 나누어 각 10戶씩 배정했다.

38 『太宗實錄』 卷9, 태종 5년(1405) 3월 1일. "攻治司, 掌百工制作, 繕冶, 陶鑄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39 고려시대 상의국은 현재 왕의 의복을 담당한 부서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사절요』와 『고려사』 등을 살펴보면 상원연등회 등에서 사용하는 화안(花案) 등 왕이 사용하는 기물의 제작 및 출납도 함께 담당했다. 『高麗史』 卷23, 禮11,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尙衣局設花案於王座左右楹前…".

40 국사편찬위원회, 1996, 『한국사』 21, pp.249~250.

관리의 횡령 등 여러 이유로 1416년(태종 16) 상의원에 통합되었다.

서방색은 상의원에 편입된 이후 왕실의 생활공예품 제작 및 연갑, 향로, 문방구, 상류, 가구 등 생활공예품 및 의례품에 사용되었던 문방구류와 가구류를 제작하는 장색을 총칭하는 별칭으로 조선 말까지 사용되었다. 입사장은 상의원 본방에서 의례품 제작과 서방색에서 향로, 문방구류, 일부 가구의 장식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입사장을 비롯해 공조에 편입되어 있는 분야들 다수가 상의원에도 소속되어 왕실공예품의 제작 전반이 상의원에 집중되었다. 상의원은 공조의 하위 아문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실제 경공장의 129분야 중 53%가 넘는 68종의 장색이 상의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장색은 제작 기물, 제작 공정 및 기술에 따라 편입된 것이었다. 상의원 소속 경공장이 제작한 공예품은 주로 왕실 소용 물품 및 의례용 물품들로 조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통치 및 정치적 이념을 표출하는 물품들이 다수 있었기에 상의원의 업무와 기능, 기술은 조선 말까지 유지하려 하였다.[41] 특히 입사장을 포함한 장식 및 시문 기술을 지닌 장인의 구성과 인원이 고려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이는 기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출해주는 문양과 장식 조형의 공적 역할이 기존에 비해 증대했음을 의미한다.

Ⅲ. 양난 이후 입사장의 군영 편제와 직무

조선은 양난 이후인 17세기 군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효율적인 제작과 조달을 꾀했다. 입사장은 기존에 소속되었던 중앙 관청인 공조와 상의원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여기에 수도 한양을 방위하는 수도군(首都軍)인 중앙의 5군영 중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禦廳)에 배치되어 활동한 사례가 확인된다. 우선 18세기 편찬된 도감 의궤 장인 명단 중 장인의 소속 관청이 확인되는 기록에서 군영에 소속된 입사장이 나타난다. 아울러 『훈국등록』과 같은 군영 등록 자료에서 단편적이지만 당시 군영에서 제작·사용된 입사공예품 관련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양난(兩難) 이전까지 중앙관청을 중심으로 왕실과 관청, 군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제작·수급하던 기존의 체제와 달라진 경공장(京工匠) 운영이다. 관장의 중앙 군영 배치는 입사장뿐 아니라 칠장(漆匠), 다회장(多繪匠), 조각장(雕刻匠), 야장(冶匠), 마조장(磨造匠), 마경장(磨鏡匠), 소목장(小木匠) 등 다른 경공장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중앙 군영에 장인을 배치해 군영에서 사용할 물품을 직접 제작하도록 체제를 정립한 데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임진왜란 개전 초의 전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 중앙군 및 지방군의 물자 보급은 병조와 군기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몇몇 부작용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전까지 큰 전란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운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원적 형태의 보급 체계는 실전에서 비효율적이었다. 실제 개전 초 각 진영에 무기 및 군수물자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순식간에 왜군에게 밀려 왜군이 한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침투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양난 이후 군사용품의 제작 및 보급 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 되었다.

양난 직후인 16세기 말~17세기 초 군제를 개편하고 정책적으로 군비 확장과 보강에 나서면서 여러 무기를 도입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제작을 담당하는 관영공장의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공조 소속 군기시에서 전담하던 군사용품 제작을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훈련도감 등 5군영에 관장을 배속해 직접 제작하게 했다.

장인의 군영 업무 배치는 임진왜란기 훈련도감의 업무 확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도감의 본래 목적은 중국에서 온 화포를 다루는 포군 양성이었지만,

41 장경희, 1998,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6~77.

이후 점차 실전 사용을 위해 들여온 각종 무기들의 제작 기술 습득·제작·관리를 담당했다. 전쟁 기간 내내 훈련도감은 수입 무기뿐 아니라 각종 실전 무기의 제작 및 공급을 담당했고 장인을 관리했다. 여기에서 제작 장인은 기존 장인, 징발해 무기 제작을 교육시킨 양인, 왜군 포로가 모두 포함되었다.[42] 이때 입사장도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기 훈련도감의 장인 편입을 시작으로 장인들이 5군영에 배치되었다.[43] 군영 소속 장인은 도검·화포와 같은 무기와 무구는 물론 영을 전달하는 영패, 군영에서의 일상 생활용품까지 제작했다.

도감 의궤에 기록된 군영 차출 장인들의 소속과 소속 이동을 살펴보면 군영에 편입된 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경공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감 의궤에는 정유성(鄭有成, 활동 추정 기간: 1702~1739)과 같이 소속 관청 및 군영이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상의원-훈련도감으로 계속 변경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렇게 동일한 입사장이 군영과 중앙관청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어 기록된 사례는 몇몇 존재한다. 지방관청이나 사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경공장의 소속 관청 중 하나로 군영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상의원의 변수(邊首)처럼 한 군영에 10~20년 이상 있으면서 군영 및 도감 공역에 참여한 표정길(表廷吉, 훈련도감, 1690~1702), 전수강(田壽江, 훈련도감, 활동 추정 기간: 1721~1748)과 같은 장인도 존재했다.

입사장은 군영에서 영패(令牌), 전촉(箭鏃) 등 입사 기법을 사용하는 물품의 시문이나 제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영 소속 입사장은 의궤를 통해 소속 군영과 성명이 일부 확인된다. 의궤에 기록된 군영 소속 입사장과 소속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군영 소속 장인의 공역 참여는 총 17건이 확인되는데, 이 중 훈련도감이 17건으로 모든 공역에 참여해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금위영이 6건, 수어청이 3건, 어영청 2건이 확인된다.

유물을 통해 보면 입사장은 군영에서 무기, 의례, 군영 실무에 사용하는 기물의 입사시문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보면 조총이나 화승총의 문양 및 문자문, 표식(사진 1), 검과 봉, 영패와 영전촉의 문자문 등에서 입사시문이 확인된다.



사진 1 화승총(조선 후기, 독일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아울러 현전하는 17~19세기 군영등록에서도 순도가 높은 은인 천은(天銀)을 감입한 환도를 제작하면서 사용한 재료와 은입사 통개(筒介) 등 군영 내 입사공예품 제작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44]

이 중 용처 및 용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입사 유물

42 『宣祖實錄』 卷48 선조 27년(1594) 2월 29일. “備邊司 啓曰: “降倭非我族類之人, 混處城中未安. 或送於咸興、鏡城、寧邊等, 使之敎習放砲無妨. 姑令屬于龍山舟師將金友皐手下, 訓習火砲、焰(焔)(硝)等事。” 答曰: “此倭乃砲手, 其放砲之法, 神速無比, 亦能頗解刀槍等法. 屬于訓鍊都監, 給料傳習, 不得已然後, 隨後處置可也. 不必過疑. 英雄手段, 豈如是乎?””.

43 훈련도감에 언제부터 장인이 편입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선조 27년(1594) 철장(鐵匠)의 훈련도감 편입 기사와 선조 28년(1595) 기사에 훈련도감 소속 장인의 급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련도감이 설치된 1593년 직후 도감의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宣祖實錄』 卷49, 선조 27년(1594) 3월 1일. “…雖欲分敎四方之人, 若無利器, 何以成效? 若擇取京中善手鐵匠五六人, 來習於都監, 藝成之後, 分送於黃海, 忠淸沿海各官炭, 鐵有裕處, 設爲都會, 連續打造, 因使精巧勤幹曉解鳥銃之人, 爲守令, 專掌其事, 責其成效, 則鳥銃之用, 其路日廣, 而人無不習. 此等條件, 皆係今日急務, 請別爲事目, 廣布中外, 刻日施行. 上從之”; 『宣祖實錄』 卷61, 선조 28년(1595) 3월 10일. “…事若至此, 有司雖蒙重罪, 有不足恤, 其於國體何? 軍餉廳一朔支用, 砲·殺手、訓鍊都監農軍幷米五百七十五石零, 南下砲手妻料米三十二石零, 訓鍊都監匠人料米六石零,…”.

44 『御營廳舊式例』, 인조 2년(1624) 일 미상. “條鐵別環刀一柄所入 斫鐵八斤 魚膠一兩五錢 正鐵八兩 全漆一合 舌根天銀三錢 每漆二勺 粧飾起畫入絲則天銀九錢純入絲則天銀一兩三錢 魚皮 道乃起畫入絲則天銀九錢純入絲則天銀一兩三錢 柄甘伊靑天絲五錢 帶粧飾起畫入絲則天銀九錢純入絲則天銀一兩三錢 炭一石”; 『御營廳謄錄』 정조 15년(1791) 4월 16일. “…勿論禿城山城中軍金熔內下銀入絲筒介一部先爲賜給監…”.

표 4 의궤에 기록된 5군영(軍營) 소속 입사장

연도	도감 성격	근거 의궤명	규장각 소장번호	소속 군영	성명
1701	국장	인현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奎13555	훈련도감	表廷吉
1702	가례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89	훈련도감	表廷吉, 鄭有成
				금위영	姜大津
1718	가례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94	훈련도감	表時才
				어영청	鄭有成
1721	책례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奎13099	금위영	鄭有成
				훈련도감	表時才, 安樂成, 田壽江
				수어청	李三同, 鄭致成, 李儉同
1725	책례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奎14909	금위영	鄭有成
				어영청	金壽萬
				훈련도감	李儉同
1726	존숭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0	훈련도감	李弘成, 表時才
1726	복합	별삼방의궤	외규127	훈련도감	全守江, 李三同
				금위영	李儉同
1727	가례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06	훈련도감	全守江
				수어청	李儉同, 李三同
				금위영	鄭有成
1731	국장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76	훈련도감	李弘成
1732	부묘	선의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79	훈련도감	田守江
1736	책례	사도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108	훈련도감	朴順徵
1739	존숭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3	훈련도감	梁技成
1739	복위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奎13506	훈련도감	田守江, 鄭有成
1744	가례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09	훈련도감	鄭有貴
1747	존숭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8	훈련도감	鄭有起, 梁技成
1748	중건보수	진전중수도감의궤	奎14913	훈련도감	梁斗亘非, 田壽江
1772	시호	숙빈상시도감의궤	奎13491	훈련도감	鄭允金, 李振芳
1773	존호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왕후순왕후상호도감의궤	奎13265	훈련도감	鄭順興, 李振芳, 李振威

은 영패와 영전촉이 있다. 또 고종 21년(1884) 5군영을 총어영, 장위영, 통위영 3영으로 개편 설치한 뒤의 영전촉도 전해진다(표 5). 영(令)을 전달하는 상징문자가 은입사 되어 있는 이 유물들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직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만기요람』(1808)의 군기(軍器) 현황 기록에는 입사가 시문된 환도가 훈련도감, 금위영에서 확인되어 현전하는 유물 및 아래 언급되어 있는 군영 소속 도감 차출 장인의 소속 군영 현황과도 일부 부합한다.[45]

45 『萬機要覽』 軍政篇2, 訓鍊都監, 軍器. "…環刀七千二百十九柄. 五千九十四柄. 別武士, 馬, 步軍分給. 塗金粧飾一柄. 入絲粧飾一柄. 長劒一柄. 短劒一柄. 條鐵別環刀五十九柄…";
『萬機要覽』 軍政篇3, 禁衛營, 軍器. "…環刀一萬一千六百三十七柄. 一萬二百六十九柄. 別武士, 騎士, 京, 鄕軍兵分給. 長劒三柄. 菖蒲劒一柄. 塗金粧飾二柄. 銀入絲七十柄…".

표 5 훈련도감, 총어영, 장위영의 영패와 영전축

5군영 (17~19세기)	훈련도감	 훈련도감영전축 (19세기, 독일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3영 (1884~1894)	장위영	 친군장위영사영전축 (19세기 말,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총어영	 철제은입사총어사전명패 (19세기 말, 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물품의 제작 및 문양의 입사시문은 16~17세기 초까지는 상의원과 군기시, 공조와 작업을 연계해 제작했지만, 5군영 및 각 군영이 설치되고 장인들의 배속이 본격화되는 17세기 이후에는 군영에서의 직접 제작 및 시문이 이뤄졌다. 따라서 현전하는 각 군영 소비 물품의 제작은 기존 중앙관청과 중앙 군영이 동시에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Ⅳ. 도감 차출 입사장의 유형과 작업 방식

1. 도감의 입사장 유형

조선은 오례를 비롯한 왕실 및 국가의 행사와 대규모 공역을 치를 때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소용되는 공예품의 체계적인 제작을 위해 임시 아문인 권설도감(權設都監, 이하 '도감')을 조선 전기부터 설치 운영했다.[46] 의례와 공역을 위한 도감 운영은 고려에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처럼 입사장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고려사』에는 다양한 목적의 도감이 확인된다. 중광사조성도감(重光寺造成都監, 1029)[47]을 시작으로 조선에 계승된 국장도감(國葬都監), 조묘도감(造墓都監), 빈전도감(殯殿都監), 혼전도감(魂殿都監),[48] 책례를 담당한 상책도감(上册都監), 왕실의 행렬을 담당한 노부도감(鹵簿都監), 연등회를 주관하고 관련 물품을 제작한 연등도감(燃燈都監), 제기 제작 및 보수를 담당한 제기도감(祭器都監; 祭器造成都監) 등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여러 도감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9]

조선은 국초부터 고려와 중국의 예제를 근거로 여러

46 장경희, 1999, 앞의 논문, p.47.

47 비슷한 시기에 나성을 축조하기 위한 나성조성도감도 설치되었다. 1029년 중광사와 나성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 후 중광사와 나성조성도감의 관리들을 승진시킨 기록이 있어, 국초부터 신라의 성전제를 모본으로 한 조성도감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高麗史』世家 卷5 현종 20년(1029) 11월 12일. "丙寅 賜開京羅城及重光寺造成都監員吏職一級". 또 중광사조성도감은 통일신라시대 성전과 마찬가지로 중광사 개창 이후에도 중광사의 유지 보수를 위해 남아 있어 통일신라의 성전과 거의 유사한 체제로 운영되었음이 파악된다. 중광사 조성이 끝난 정종 연간인 1043년 중광사조성도감사가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통해 통일신라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를 위해 중광사조성도감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高麗史』世家 卷6 정종 9년(1043) 9월 13일. "丁丑 有司奏, '重光寺造成都監使鄭莊, 與吏胥承迪, 盜監臨之物, 請准法杖配. 制從輕典, 御史臺論請, 依律科斷.' 允之".

48 조선시대 왕, 왕비의 흉례시 설치되는 國葬, 殯殿, 造墓(山陵)都監의 설치 형식과 도감 명칭, 근거는 공민왕의 왕후였던 노국대장공주의 국장(1365)에서 처음 확인된다.『高麗史』志 卷18, 禮6, 凶禮. "恭愍王十四年二月甲辰 徽懿公主薨, 輟朝三日. 百官玄冠素服. 置殯殿·國葬·造墓都監, 及山所靈飯·法威儀·喪帷·輴車·祭器·喪服·返魂·服玩·小造·棺槨·墓室·鋪陳·眞影等十三色, 以供喪事, 又命諸司, 設奠".

49 고려시대에는 營造를 담당한 宮闕都監(1177), 重光寺造成都監(1029), 南京開創都監(1101), 경전함을 제작하는 置鈿函造成都監(1272), 배를 제작하는 置戰艦兵糧都監(1272), 군기를 제작하는 戎器都監(軍器造成都監, 1223 처음 설치), 고려 후기 왕이 원으로 갈 때 陪從을 담당한 行從都監, 왕실의 행렬을 담당한 鹵簿都監(문종대 설치), 군복 제작을 담당한 征袍都監(1084 설치), 각종 재해의 구제를 담당한 救濟都監(1119 처음 설치), 화포를 제작한 火燒都監, 무예지와 무예를 정리하는 武藝都監, 화폐를 주조하는 鑄錢都監, 속장경의 판각 및 제반사항을 담당했던 敎藏都監(1086), 음악을 관장한 도감으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慣習都監(우왕대 설치) 등 다양한 종류의 도감이『高麗史』에서 확인된다.

도감이 설치되었다. 이들 도감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예품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위해 도안, 도설 및 깃발의 그림 제작 등의 역할을 담당할 화원(畫員)과 공예품의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을 편입시켜 도감 내에서 공예품을 제작하게 했다. 장인과 화원은 공조와 공조 내 하위 아문, 도화서 등에서 차출했으며, 인력이 부족하거나 관장이 지니지 않은 기술력이 필요할 때는 사장을 징발하기도 했다.

조선 전기에는 도감 의궤가 전하지 않아 차출 도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7세기 이후 확인되는 의궤의 입사장이 참여한 도감으로 추정해보면 조선 전기에도 국장도감, 빈전도감, 책례도감, 존숭도감, 가례도감, 제기조성도감, 부묘도감, 추숭도감 등에 입사장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전하는 의궤에서는 광해군 1년(1609) 이미 사망한 선조의 왕비인 의인왕후와 광해군의 즉위 후 대비가 된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에게 존호를 올리고 광해군 왕비가 된 문성군부인(1576~1608)과 세자 책봉례를 기록한『의인왕후존호대비전상존호중궁전책례왕세자책례관례시책례도감의궤』에서 입사장의 공역 참여가 처음 확인된다. 이후 각 공역별 은입사장을 포함한 입사장의 도감 참여 내용을 의궤에 근거해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입사장이 참여한 도감 유형을 살펴보면 존숭·존호도감(尊崇, 尊號, 上號, 謚號)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왕실의 장례를 주관하는 도감(國葬, 禮葬, 葬禮)이 26건, 책봉례를 주관하는 도감(冊禮都監)이 20건, 가례도감 17건,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부묘도감 11건, 건물의 중수나 의물 제작·보수 등을 담당한 도감(改修, 造成, 營建)은 9건, 추존 관련 도감(追尊, 追崇)이 3건, 묘를 조성하거나 이장을 위해 설치한 도감(山陵, 遷陵)이 2건이었다. 작방별로 보면 입사장 외에도 실록에서 의궤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입사장이 참여한 공역들이 확인되어 실제 참여한 공역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감 내 입사장의 작업은

표 6 17~20세기 초 도감에 참여한 입사장과 제작 참여 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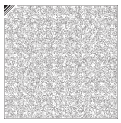
연도	도감 성격	근거 의궤	소장처 서지번호	장인 성명	입사장 참여 기물[50] (괄호는 수량)
1609	책례 / 존호	의인왕후존호대비전상존호중궁전책례왕세자책례관례시책례도감의궤	奎13196	安應天, 金龍守, 朴已生, 金義成, 加音破田	護匣豆錫入絲鎖鑰(6) 金銀交入絲鎖鑰(4)
1609	부묘	선조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12	安應天	豆錫粧飾鑰入絲鑰匙(4)
1610	추존	공성왕후추숭도감의궤	奎14880	白有宗	黑漆玉册函 正鐵入絲鑰匙(1) 入絲粧飾接貼四排項菊花筒具(6) 護匣入絲鑰匙(2)
1612	제작	제기도감의궤	奎14931	安應天, 金龍守	-
1616	추숭	선조의인왕후공성왕후추숭도감의궤	奎13244	崔應頭[51]	册寶護匣 草文入絲粧飾護匣鑰匙(2)
1621	존숭	광해군존숭도감의궤	奎14891	安應天, 安仁男, 禹愛男, 安一男	鎖鑰四部 粧飾銀金入絲(4) 正鐵入絲粧飾 - 각종 정철 장식
1621	존호	선조의인왕후공성왕후존호도감의궤	奎14895	安應天, 安仁男, 禹愛男	護匣鎖鑰六部 粧飾銀金入絲(6)

50 본 표의 입사장 제작 참여 기물은 의궤의 도설(圖說)에 기록된 입사공예품, 품목(稟目)의 작업 관련 내용, 이문(移文)의 실입(實入)과 용환(用還)의 투입 재료와 사용 후 반납된 재료 관련 기록에서 입사로 기록되어 있거나 관련 재료가 적혀 있는 것만 추출해 정리했다. 이 중 입사 재료 지급 내용과 입사장 참여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물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참여 기물 목록에서 제외했다.

51 『선조의인왕후공성왕후추숭도감의궤』(1616)에는 현재 나주시 남평읍의 조선시대 지명인 남평 입사장 최응두의 참여 기록이 있다. 각 房의 참여 장인을 방 工匠秩조에 정리한 다른 의궤들과 달리『선조의인왕후공성왕후추숭도감의궤』(1616)는 참여한 畫員의 이름만 3房과 工匠別單에 기록되어 있고, 참여 장인은 제작 의물에 대한 서술에 기록되어 있다. 참여한 입사장 관련 기록은 통(筒), 호갑조(護匣條)에, 입사자물쇠는 호갑 도설 아래 적혀 있다.

연도	도감 성격	근거 의궤	소장처 서지번호	장인 성명	입사장 참여 기물[50] (괄호는 수량)
1627	가례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97	安仁男	正鐵入絲粧飾秩 輦造作時內用秩
1638	가례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61	安仁男, 金福立	寶盞鎖鑰 銅鍍金粧飾金銀入絲鎖鑰(2) 朱盞鎖鑰 銅鍍金粧飾金銀入絲鎖鑰(2)
1645	예장	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	奎13918	安仁男	印盝入絲鑰匙(1), 朱盝入絲鑰匙(1)
1645	책례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奎13062	安仁男, 朴介進, 執居金, 徐仲斤	王世子 印盝朱盝豆錫入絲鎖鑰(2)
1649	책례	현종왕세손책례도감의궤	奎13067	安日男	印盝入絲鑰匙(1), 朱盝入絲鑰匙(1)
1649	국장	인조국장도감도청의궤	奎13521	安善一	護匣 金銀入絲粧飾鑰匙(2)
1651	책례	효종인선왕후중궁전수책시책례도감의궤	奎13066	安善一, 李天業	護匣 金銀入絲粧飾鑰匙(2)
1651	책례	현종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奎13069	安善一, 李天業	印盝入絲鑰匙(1), 朱盝入絲鑰匙(1) 護匣 入絲鎖鑰(2) 擧輦正鐵入絲粧飾秩
1651	존숭	인조장렬후존숭도감도청의궤	奎13252	安善一, 李天業	護匣 入絲鎖鑰粧飾(2) 擧輦正鐵入絲粧飾修改(보수)
1651	부묘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24	安善一, 李天業	護匣 入絲粧飾鑰匙(6)
1651	가례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71	李天業, 劉孛屎	嬪宮輦 正鐵入絲裝飾 嬪宮 印盝 入絲鎖鑰(2) 嬪宮 朱盝 入絲鎖鑰(2)
1659	국장	효종국장도감도청의궤	奎13527	安善一	護匣鑰匙 正鐵打造金銀交入絲粧飾鑰匙(2)
1661	책례	명성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073	安善一, 李天業	寶盝入絲鑰匙(1), 朱盝入絲鑰匙(1)
1661	존숭	장렬왕후인선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55	安善一, 李天業	寶盝入絲鑰匙(2), 朱盝入絲鑰匙(2)
1667	책례	숙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076	安善一, 朴彦信, 李天業	印盝入絲鑰匙(1), 朱盝入絲鑰匙(1) 各樣前排正鉄入絲粧飾(輦, 車)
1667	보수 / 제작	영녕전개수도감의궤	奎14224	李天業, 姜宗, 姜大益, 安善一, 鄭有體, 韓仲天	神輦三坐 正鉄入絲粧粧飾
1669	부묘	신덕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奎13496	安善一, 李天業, 姜宗, 朴成建	護匣 銀金入絲鎖鑰合(2) 寶朱盝 入絲粧飾鑰匙具(4)
1671	가례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78	安善一, 李天業, 朴成建, 李俊陽, 金白云, 姜宗	護匣 入絲鎖鑰具(2)
1674	국장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奎14865	李後良, 李具良	寶印護匣 入絲粧飾鑰匙(4)
1674	천릉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	奎13532	李興良, 李有良	入絲菊花同(4)
1675	국장	현종국장도감의궤	奎13539	李浚良, 李萬石	寶印護匣 正鐵打造金銀交入絲粧飾鑰匙具(2)
1676	부묘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36	安善一, 李天業, 姜宗, 朴成建	護匣 銀金入絲鎖鑰(2)
1676	존숭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58	姜宗伊, 李萬石, 安白旭, 姜成建, 李厚良, 尙男, 朴宗善, 姜大益	大王大妃, 王大妃 殿擧輦入絲粧飾 寶盝入絲鑰匙(2), 朱盝入絲鑰匙(2)
1677	책례	인경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082	李浚良, 姜宗伊, 李萬石, 安白郁, 朴成達, 尙男, 姜大益, 朴宗善, 姜宗, 金善立 無應戌伊	寶盝入絲鑰匙(1), 朱盝入絲鑰匙(1) 護匣 入絲鎖鑰(2) 中宮大擧輦 正鐵入絲粧飾
1680	가례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84	姜宗, 安萬雄, 金善立, 安自雲, 安命吉	寶盞鍍金裝飾鎖鑰 金銀入絲匙(1) 朱盞銅鍍金粧飾鎖鑰 金銀入絲匙(1) 護匣金銀入絲粧飾鑰匙(2)
1681	시호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奎13243	李浚良, 姜宗	寶盝入絲鑰匙(2), 朱盝入絲鑰匙(2) 護匣 入絲鎖鑰(4)
1681	국장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53	李浚良	護匣 正鐵粧飾鑰匙金銀交入絲(2)
1683	시호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도감의궤	奎14927	李浚良, 姜宗, 安萬雄, 安命吉	護匣 正鐵粧飾鑰匙金銀交入絲(8)

연도	도감 성격	근거 의궤	소장처 서지번호	장인 성명	입사장 참여 기물[50] (괄호는 수량)
1683	존숭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62	姜宗, 金夢赤, 姜宗伊	寶盞入絲鑰匙(1), 朱盞入絲鑰匙(1)
1684	국장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	奎14869	姜宗, 金夢赤, 姜宗伊	寶盞入絲鑰匙(1), 朱盞入絲鑰匙(1) 護匣 銀金入絲鎖鑰(2)
1686	부묘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45	朴成建	護匣二顆 銀金入絲鎖鑰(4)
1687	보수 / 제작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의궤	奎14911	姜宗, 朴尙男	護匣 朱盞 金銀入絲鎖鑰 改修(2) 寶錄 豆錫金銀入仕鎖鑰 新造(3)
1690	책례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091	安萬雄, 朴成建, 鄭武信, 表廷吉, 安明吉, 姜宗	護匣 交金銀入絲鎖鑰(2) 彎輦正鐵粧飾 入絲交鑞染ᄀᆞ古里(40)
1690	책례	옥산대빈승후수책시책례도감도청의궤	奎13201 奎13202	姜宗, 鄭武信, 朴尙男. 安明吉, 表廷吉, 李厚良, 安萬雄, 安萬益, 劉五昌	寶盞 金銀入絲鎖鑰(1) 朱盞 金銀入絲鎖鑰(1)
1691	부묘	장렬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奎13525	安萬雄, 朴成建	護匣 銀金入絲鎖鑰(2)
1694	책례	숙종인현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086 奎13087	姜宗, 安命吉, 安萬雄, 安萬益, 安樂成, 鄭有吉	鐙子二雙(入絲十品銀 사용) 寶盞 金銀入絲鎖鑰(1), 朱盞 金銀入絲鎖鑰(1)
1696	가례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92 奎13093	姜宗伊, 表廷吉, 鄭二山, 李枝英, 朴成建, 安莫成	王世子嬪 玉印 印盞, 朱盞 入絲鎖鑰(4)
1698	부묘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奎13503	安萬雄	護匣二馱 金銀入絲鑰匙(4)
1701	국장	인현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奎13555	表廷吉, 安萬雄, 鄭武信, 鄭二山	仁顯王后諡寶護匣 粧飾鑰匙 金銀交入絲(4)
1702	가례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089	鄭二山, 表廷吉, 鄭有成, 姜大津, 安樂成	護匣 金銀入絲粧飾鎖鑰匙(2) 彎輦儀仗粧飾 正鐵入絲粧飾 彎輦儀仗粧飾 豆錫入絲粧飾
1713	존숭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67	鄭東善	-
1713	제작	어용도사도감의궤	奎13996	安萬益(等3)	-
1718	복위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奎13494	表時才, 安萬興, 安萬雄, 表時才, 鄭武臣	印盞 銀入絲鎖鑰匙(2) 朱盞 銀入絲鎖鑰匙(2)
1718	가례	경종선의후가례도감의궤	奎13094	鄭武信, 表時才, 李老味	世子嬪 玉印朱盞入絲鎖鑰具(2)
1720	국장	숙종국장도감의궤	奎13548	鄭武信, 崔昌業, 睦三建	護匣 正鐵打造後金銀交入絲匙(4)
1721	책례	영조왕세제수책시책례도감의궤	奎13099	鄭有成, 鄭武信, 金春奉, 表時才, 安樂成, 田壽江, 李三同, 鄭致成, 李儉同, 劉興漢, 李壽光, 鄭萬成	印盞入絲鑰匙(2), 朱盞入絲鑰匙(2) 鞍子正鐵入絲粧飾, 鐙子正鐵入絲粧飾
1722	부묘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51	李三同, 金春奉, 劉起漢	仁敬王后 寶盞, 朱盞 銀金入絲鎖鑰(2) 仁顯王后 寶盞, 朱盞 銀金入絲鎖鑰(2)
1725	국장	경종국장도감의궤	奎13566	表時才, 崔昌業, 李弘成	護匣 正鉄打造後金銀交入絲匙(2)
1725	책례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奎14909	鄭有成, 鄭武信, 劉起漢, 黃時傑, 李壽光, 李宏伊, 金壽萬, 李儉同	印盞入絲鑰匙(1), 朱盞入絲鑰匙(1) 輦足臺ᄀᆞ古里四介 入絲粧飾
1726	존숭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0	李三同, 李弘成, 表時才	大王大妃 寶盞, 朱盞 銀金入絲鎖鑰(2) 王大妃 寶盞, 朱盞 銀金入絲鎖鑰(2)
1726	책례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100	金春奉	彎輦橫杠莫古里十四介銀入絲
1727	가례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06	全守江, 李儉同, 李三同, 金春奉, 鄭有成	嬪宮彎輦橫杠莫古里銀入絲 印盞 入絲鎖鑰匙(2), 朱盞 入絲鎖鑰匙(2)
1731	국장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76	李弘成, 崔昌業, 金春奉, 李弘尙, 金春日, 李次俊	魂殿大彎長杠二部頭甲銀入絲 魂殿大彎橫杠五部頭甲銀入絲 大殿 平轎子 龍頭以銀入絲頭甲 謚寶護匣 正鐵粧飾鑰匙金銀交入絲(2)



연도	도감 성격	근거 의궤	소장처 서지번호	장인 성명	입사장 참여 기물[50] (괄호는 수량)
1732	부묘	선의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79	田守江	-
1735	제작	세조영정모사도감의궤	奎14922	李次中(等3)	-
1735	제작	현빈옥인조성도감의궤	奎14947	鄭有成	印盡 入絲鎖鑰匙(1), 朱盡 入絲鎖鑰匙(1)
1736	책례	사도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108	鄭有成, 金守江, 金成衿, 李弘成, 成世柱, 鄭惡同, 琴石禁, 朴順徵	印盡 入絲鎖鑰匙(1), 朱盡 入絲鎖鑰匙(1) 上馬臺一坐正鐵入絲粧飾 礬輦後則 入絲銀絲起畫
1739	복위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奎13506	田守江, 鄭有成	護匣 金銀入絲鑰匙(2)
1739	존숭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3	金壽江, 金永萬, 梁技成	礬輦正鐵入絲粧飾修改
1740	시호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奎13264	劉巳漢, 劉老味, 李次俊	護匣 金銀入絲鎖鑰(2), 鑰匙(2)
1744	가례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09	李壽江, 朴萬敦, 李次俊, 鄭有貴, 朴二重, 劉起鉉, 朴介同, 朴先伊	嬪宮玉印 印盡朱盡鎖鑰(4)
1747	존숭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88	鄭有起, 梁技成	礬輦正鐵入絲粧飾修改
1748	제작	진전중수도감의궤	奎14913	梁斗亘非, 田壽江	-
1751	책례	의소세손책례도감의궤	奎13199	劉起漢	印盡入絲鎖鑰(1), 朱盡入絲鎖鑰(1)
1752	예장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외규181 외규182	柳起漢, 金益成	-
1752	예장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	외규173 외규174	柳起漢, 金老味	謚玉印 印盡銀入絲鎖鑰(1), 朱盡銀入絲鎖鑰(1)
1754	존호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奎13294	鄭順儀, 全二萬, 劉起漢, 李次俊, 朴次順, 李枝萬	玉册外櫝 正鐵打造銀入絲鎖鑰(4) 金寶護匣 正鐵打造銀入絲鎖鑰(8)
1756	존숭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269	劉起漢, 劉道亨, 李振輝, 李次俊	玉册竹册黑漆外櫝鎖鑰匙(4) 護匣 銀入絲鎖鑰(8)
1757	국장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57	朴萬英	玉册外櫝鎖鑰匙(2)
1757	국장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89	柳起漢, 朴尙琦	護匣 銀入絲鎖鑰(2)
1759	가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102	李彦墨, 朴次順	護匣 銀入絲鎖鑰(2)
1762	가례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	奎13114	劉道亨, 鄭順興, 劉就亨, 金六世, 金萬世	世孫嬪 礬輦後則 入絲銀絲起畫
1772	시호	숙빈상시도감의궤	奎13491	鄭允金, 李振芳	玉册外櫝一部鎖鑰匙一部 正鐵鑄成入絲(1) 銀印護匣鎖鑰二部 正鐵打造銀入絲(2)
1773	존호 / 시호	현종명성왕후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상호도감의궤	奎13265	鄭順興, 李振芳, 李振威	金寶護匣鎖鑰匙 正鐵打造銀入絲(10) 玉寶護匣鎖鑰匙 正鐵打造銀入絲(10)
1776	국장	영조국장도감의궤	奎13581	朴掬新, 劉就亨	護匣鎖鑰匙 正鉄打造後金銀交入絲(2)
1776	봉원	장헌세자상시봉원도감의궤	奎13337	柳道亨, 劉就亨	玉印護匣 鎖鑰匙正鉄打造銀入絲(2) 玉册外櫝鎖鑰匙一具 正鉄銀入絲(1)
1777	추존	진종추숭도감의궤	奎13327	柳道亨, 柳就亨, 朴掬臣	護匣鎖鑰匙 正鉄打造銀入絲(2) 玉册外櫝鎖鑰匙 正鉄銀入絲(1)
1778	책례	효의왕후책례도감의궤	奎13116	劉道亨	寶盡 朱盡 鎖鑰 正鉄鑄成銀入絲(2) 護匣鎖鑰匙 正鉄鑄成銀入絲(2)
1778	존숭	정순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306	金庸狼, 朴砣草里	寶盡 朱盡 鎖鑰 正鉄鑄成銀入絲(2) 護匣鎖鑰匙 正鉄鑄成銀入絲(2)
1778	부묘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의궤	奎13587	劉道亨, 金虎狼	寶盡 朱盡 鎖鑰 正鉄鑄成銀入絲(8) 護匣鎖鑰匙 正鉄鑄成銀入絲(8)
1783	존호	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의궤	奎13311	劉就亨, 劉道亨, 劉尙虎, 牟澤元	印盡 朱盡 鎖鑰 正鉄鑄成銀入絲(4) 護匣鎖鑰匙 正鉄鑄成銀入絲(4) 王大妃 護匣鎖鑰 正鉄打造銀入絲(2)

연도	도감 성격	근거 의궤	소장처 서지번호	장인 성명	입사장 참여 기물[50] (괄호는 수량)
1784	존호	영조정성왕후정순왕후장헌세자혜빈존호도감의궤	奎13297	劉就亨, 朴國臣, 鄭順興, 劉相景	印盡 朱盡 鎖鑰 正鐵銀入絲鎖鑰匙(4) 護匣鎖鑰匙 正鉄鑄成銀入絲(4) 英祖, 貞聖王后, 王大妃 護匣鎖鑰 正鐵打造銀入絲(12)
1784	책례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200	劉聖大, 劉就亨, 劉太振	竹册黑漆外櫝 正鐵入絲起畫
1787	존호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奎13314	劉道衡, 劉就亨, 鄭順興	朱盡, 印盡 正鐵銀入絲鎖鑰(2)
1800	국장	정조국장도감의궤	奎13634	金春甲, 朴福信, 李大喜, 金聖喆	金寶護匣 正鐵銀入絲鎖鑰(2)
1802	존숭	정순왕후효의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319	田春甲, 宋道恒, 金聖喆	朱盡, 印盡 正鐵鑄成銀入絲(4) 護匣 正鐵鑄成銀入絲(4)
1802	가례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122	金英福, 金聖喆	中宮鞪鞴粧飾入絲
1804	존호	정순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奎13322	金聖喆	朱盡,寶盡 正鐵銀入絲粧飾鎖鑰(2)
1805	국장	정순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592	田春起, 鄭大鍊	金寶護匣 正鐵銀入絲鎖鑰(2)
1805	제작	인정전영건도감의궤	奎14334	申春甲, 田春甲, 宋道恒	-
1819	가례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奎13130	李仁福, 崔致聲	朱盡, 印盡 正鐵鑄成銀入絲(4)
1821	국장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649	宋命吉, 宋在得	金寶護匣 正鉄銀入絲鎖鑰(2)
1823	예장	수빈장례도감의궤	奎13927	宋喆得	玉印護匣 正鉄鑞染鎖鑰 正鉄銀入絲匙具(2)
1830	예장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奎13718	金命植	玉印 粧飾鎖鑰 銀入絲粧飾(2)
1830	책례	헌종왕세손책저도감의궤	奎14910	李仁福, 李英得	-
1835	국장	순조국장도감의궤	奎13669	李命石, 李光祿, 金俊成, 李好良, 劉白元	金寶護匣 正鉄鑞染鎖鑰 正鉄銀入絲匙具(4)
1835	추존	익종추숭도감의궤	奎13396	金俊成	金寶護匣 正鉄鑞染鎖鑰 正鉄銀入絲匙具(2)
1837	존숭	순원왕후신정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376	朴興伊, 宋再乭	玉寶護匣 正鐵銀入絲鎖鑰(4)
1843	국장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802	金今喆, 李明植, 柳良源	金寶護匣 金銀交入絲粧飾鎖鑰(2)
1845	가례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奎13143	李命石, 劉錫源	中宮鞪鞴正鐵粧飾入絲
1849	국장	헌종국장도감의궤	奎13784	李載石	金寶護匣 正鐵打造銀入絲粧飾鎖鑰(2)
1851	존숭	순원왕후신정왕후효정왕후존숭도감의궤	奎13385	金巨卜, 金乭伊	玉寶護匣 正鐵銀入絲鎖鑰匙具(6)
1857	국장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385	李在石, 李在吉	金寶護匣 正鐵打造金銀交入絲鎖鑰匙具(2)
1865	국장	철종국장도감의궤	奎13844	田一福	金寶護匣 正鐵打造金銀交入絲鎖鑰匙具(2)
1875	책례	순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奎13169	金漢石	-
1878	제작	보인소의궤	奎14212	金龍煥 (等3)	大朝鮮國主上之寶 寶盡鎖鑰匙具正鐵銀入絲(1) 爲政以德金寶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昭信之寶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施命之寶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論書之寶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科擧之寶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宣賜之記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武衛所 寶盡鎖鑰匙具 正鐵銀入絲(1)
1885	가례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	奎13174	金龍煥	嬪宮鞪鞴 正鐵粧飾入絲
1892	국장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奎13736	金景雲, 李在吉	金寶護匣 正鐵打造金銀交入絲鎖鑰匙具(2)
1898	국장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奎13883	金景雲, 李在吉	玉寶護匣 正鐵打造金銀交入絲鎖鑰匙具(2)
1904	국장	순명비국장도감의궤	奎13902	朴命根, 尹承東	護匣 正鐵打造金銀交入絲鎖鑰匙具(2)
1906	가례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奎13182	李德根, 金光奎	-

입사시문에 집중되었다. 의궤에 기록된 입사공예품 및 입사장이 재료를 지급받아 제작에 참여한 작업은 기물 자체의 제작보다는 형태가 완성된 기물의 문양 및 표상 시문에 집중되었다.[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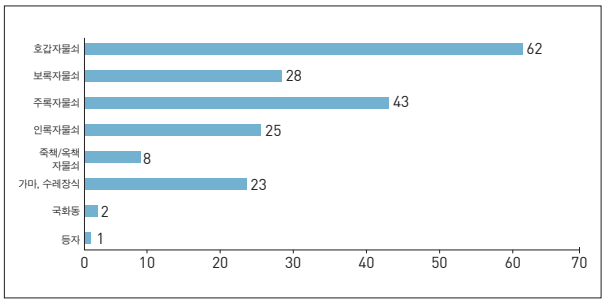


그림 1 의궤에 기록된 기물별 입사장 제작 참여 건수

〈그림 1〉의 내용을 토대로 입사장이 참여한 도감에서 제작된 입사공예품을 기종별로 건수를 집계하면 호갑자물쇠(62건), 주록자물쇠(43건), 보록자물쇠(28건), 인록자물쇠(25건), 가마 및 수레 장식(23건), 죽책 및 옥책 외함 자물쇠(8건), 국화동(2건), 등자(1건) 순이었다. 자물쇠는 동합금인 두석(豆錫)이나 순도 높고 강도가 좋은 정철(正鐵)로 제작된 입사자물쇠로 보록(또는 인록)과 주록을 담는 호갑자물쇠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주록(朱盝)을 잠그는 주록자물쇠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주록(朱盝)은 인주를 담는 외함(外函)으로 왕과 왕비, 대비의 금보나 옥보를 담는 보록(寶盝)과 세자와 세자빈의 옥인이나 은인을 담는 인록(印盝)을 제작할 때 함께 제작되었다.[53] 즉 보록(寶盝)·인록(印盝)처럼 사용자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보록과 인록이 조성되면 공통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록의 수량이 보록과 인록을 합산한 수에서 10건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보록과 인록의 합산 수량(53건)과 인록(43건)이 10건가량 차이나는 이유는 새로운 인장을 조성할 때는 함께 제작되지만, 1687년 장렬왕후 책보 수개도감처럼 기존의 보록·인록을 보수하면서 교체를 위해 보록자물쇠 등만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의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수레와 가마에 부착하는 철제 경첩이나 막고리, 장식 등의 입사시문이 확인된다. 실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가마들에 부착된 철물 일부에서는 입사 장식이 확인되어 실제 용례를 보여준다. 이 외에 문헌에는 칼코등이,[54] 두석(豆錫)이나 목칠(木漆)로 제작된 함의 장식 시문 사례도 확인된다.[55]

도감 공역을 위해 차출하는 입사장은 기본적으로 공조, 상의원 소속 경공장이었다. 양난 이후에는 경공장이 수도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주둔시킨 군대인 5군영에도 배치되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중 입사장으로 도감에 차출된 사례도 있다. 경공장만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공장 중 입사를 할 수 있는 장인을 수소문해 구하거나 사장을 차출했다. 특히 16~17세기 초 양난 직후에는 전란으로 관장이 죽거나 국가 재정 부족으로 급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관장이 이탈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장의 차출이 잦았다. 입사장도 소수이지만 이런 사례가 확인된다. 광해군~인조 연간 실록에는 입사장 부족으로 공역 일정에 차질을 빚자 외공장, 사장을 수소문했다는 기

52 김세린, 2017, 앞의 논문, 국립무형유산원, p.264.

53 인장은 내함(內函)인 통(桶: 금보나 옥보면 보록[寶筒], 옥인이나 은인이면 인통[印筒])에 담아 외함인 록(금보나 옥보면 보록[寶盝], 옥인이나 은인이면 인록[印盝])에 담았다. 인주는 내함인 주통(朱桶)에 담은 후 주통을 외함인 주록(朱盝)에 담았다.

54 『承政院日記』 卷102, 인조 26년(1648) 9월 24일. “今日始到, 而劍環不爲銀入絲, 刃上多有鐵痕, 決不可用, 今欲退送改造, 前頭封裹日子已迫, 勢難往返不得, 令軍器寺, 聚會尙方及訓鍊都監匠人若干名, 刻期造作”.

55 『光海君日記』 卷106, 광해군 8년(1616) 8월 5일. “追崇都監啓曰: “都監啓辭, 傳曰: ‘豆錫雖云華美, 此無前例之事也. 兩殿冊寶護匣, 以豆錫爲之, 亦爲不可, 況至於追崇時, 何可用豆錫乎? 似違舊例. 大輦停役, 速爲入絲, 工役未及, 則退日何妨? 更察以啓’事, 傳敎矣. 入絲匠手只一, 而役事之浩繁, 如前所陳. 臣等取考甲辰·壬子儀軌, 則護匣, 皆用豆錫粧飾, 故只慮限日之未及, 不察舊例之難改, 率爾啓稟, 致勤聖敎, 不勝未安之至, 追崇冊寶護匣則依舊例, 當用入絲粧飾, 而兩殿冊寶護匣粧飾, 亦用入絲粧飾宜當. 但入絲匠人, 京中絶無, 外方匠人, 時方聞見推捉矣”.

록이 있다.[56] 이 중 광해군 8년(1616)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 주목된다. 선조, 의인왕후 박씨, 공빈 김씨 존숭도감에 호갑과 쇄약에 입사시문을 할 장인이 부족해 충원을 논의한 후 학관 양만세(楊萬世)에게 입사와 조각 공역을 총괄하게 했다.[57] 이 공역에서는 금보 호갑 3구와 옥보 호갑에 사용할 쇄약 6구에 입사시문이 이뤄졌다.[58] 의궤에는 이 공역에서 입사를 직접 담당한 입사장이 전라도 남평(全羅道 南平) 장인 최응두(崔應頭)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공역의 입사장 충원 논의 시 도성에는 입사장이 없어 지방에서 수소문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59] 실제 의궤에는 지방에서 차출된 입사장 1인만 기록되어 있다.[60] 의궤에는 최응두에 대해 '입사장 최응두 남평(入絲匠 崔應頭 南平)'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공역에 충원된 입사장은 남평의 입사장이 아닌 입사를 시문할 수 있는 은장이나 기타 금속 관련 분야의 외공장(外工匠)이나 사장(私匠)일 가능성이 있다.[61] 그 이전인 광해군 1년(1601) 의인왕후 존호, 인목왕후 대비 존숭례 및 광해군의 왕비·왕세자 책례를 위한 도감에는 지방의 사장인 전라도 함열의 김의성(金義成)과 평안도 의주의 가음파회(加音破回)가 입사장으로 차출되어 참여한 사례가 있다.[62] 이들 역시 중앙 소속 경공장은 아니기에 최응두와 마찬가지로 금속을 다루는 외공장이나 사장이 입사 작업을 위해 차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궤에서 확인되는 입사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이후 전란 복구 시기인 17세기 초반에 지방 사장인지 외공장인지 불분명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에서 차출된 입사장의 공역 참여가 다른 때보다 많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입사장의 활동 기간으로, 확실한 문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 단서가 되는 의궤의 공역 참여 횟수 및 기간을 통해 입사장의 활동 기간을 추정한 것이지만 17~18세기 초에 비해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는 활동 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진다. 17~18세기 공역에 참여한 입사장 중 20년 이상 관영공장으로 머물며 참여한 장인은 안인남(추정 기간: 1621~1645), 안일남(추정 기간: 1621~1649), 안일선(추정 기간: 1649~1676), 이천업(추정 기간: 1651~1676), 강종(추정 기간: 1661~1696), 이후량(추정 기간: 1671~1690), 정무신(추정 기간: 1690~1725), 정유성(추정 기간: 1702~1739), 전수강(추정 기간: 1721~1748), 유기한(추정 기간: 1725~1757), 유도형(추정 기간: 1756~1787) 등 총 11명이다. 하지만 19세기부터는 10년 이상 공역에 참여한 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18세기 이후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관장의 민간 경

56 이선진, 2013,「조선 후기 철제 은입사 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57.

57 『光海君日記』 卷106, 광해군 8년(1616) 8월 5일. "尊崇都監啓曰: "學官楊萬世爲人有材, 雕刻入絲等事, 極其精巧. 別監造官稱號, 指揮工匠, 依欽敬閣例, 付軍職, 冠帶常仕.…" 傳曰: "允." ".

58 『光海君日記』(중초본) 卷37, 광해군 8년(1616) 8월 19일(1616). "尊崇都監啓曰: "尊崇時兩殿護匣粧飾, 旣以入絲爲之.…"";『宣祖懿仁王后恭聖王后追崇都監儀軌』(1616), 護匣條. "鎖鑰六部粧飾銀金入絲".

59 『光海君日記』 卷106, 광해군 8년(1616). "追崇都監啓曰: "…入絲匠手只一, 而役事之浩繁, 如前所陳. 臣等取考甲辰, 壬子儀軌, 則護匣, 皆用豆錫粧飾, 故只慮限日之未及, 不察舊例之難改, 率爾啓稟, 致勤聖敎, 不勝未安之至. 追崇册寶護匣則依舊例, 當用入絲粧飾, 而兩殿册寶護匣粧飾, 亦用入絲粧飾宜當. 但入絲匠人, 京中絶無, 外方匠人, 時方聞見推捉矣. 惶恐敢啓." 傳曰: "依啓. 兩殿護匣何忙? 入絲匠多數捉來, 追崇護匣, 速爲畢役." ". 이러한 사례는『朝鮮王朝實錄』에서 종종 확인된다.

60 이후 의궤 및 공역에서는 입사장으로서 최응두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때 차출된 지방 장인이 최응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1 『선조의인왕후공성왕후추숭도감의궤』(1616)는 다른 의궤와 달리 각 작방에 참여한 장인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지 않고 각 기물의 제작 과정 사이사이에 명시되어 있어 참여 장인 중 누락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한 사례로『제기도감의궤』(1611)는 각 기물에 사이사이 명시되어 있는 장인과, 뒤에 작성된 장인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누락된 장인도 있다. 이 공역 역시 호갑과 쇄약에 입사시문을 한 장인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지만, 공역의 규모로 볼 때 다른 장인들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다.

62 『懿仁王后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册禮王世子册禮冠禮時册禮都監儀軌』(1609) 2房 工匠秩條 入絲匠.

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각종 관영공장 체제가 붕괴되는 사회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참여 기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18세기 말~19세기에 참여한 입사장을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새로운 장인들이 1~2건 짧게 공역에 참여하는 식으로 잦은 교체가 이뤄졌음이 확인된다.[63]

세 번째는 양난 이후 군영에 관장 소속이 본격화됨에 따라 군영 소속 장인의 도감 차출이 이뤄지는데,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에 이들의 소속 변경이 잦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관청 및 군영의 상황에 따라 이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평시에 입사장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관상감이나 선공감 소속 장인들도 확인된다. 이는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금속공예 기술을 가진 장인 중 입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을 입사장으로 차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2. 18세기 말~19세기 입사장 - 은입사장 직무 분화

순조 원년인 1800년『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를 시작으로 입사장이 입사장-은입사장(銀入絲匠)으로 장색이 나뉘어 업무를 분담한 사례가 의궤에서 확인된다.[64] 이러한 현상은 조선 말까지 지속되는데『대전통편』(1785),『대전회통』(1865)에서 은입사장이 추가로 편제되거나 입사장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도감 내에서 직무를 분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순조국장도감의궤(純祖國葬都監儀軌)』(1835)에서는 입사장과 은입사장이 1방과 3방에 각각 배치되어 호갑 등 두석, 목칠 기물의 입사(입사장)와 금속기물의 입사(은입사장)로 입사시문을 나누어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본래 도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공예품을 제작해야 하기에 기존의 관영공장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업에 용이하도록 보다 세분화해 분야를 나누어 장인을 배치한다. 18세기 말~19세기부터는 분야의 세분화가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단 도감 내 입사장뿐 아니라 다른 직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도감 내 분야 세분화는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례를 통해 유형을 정리하면 총 4개로 분류된다. 1유형은 동일 재료에서 기물 제작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나뉘는 경우이다. 2유형은 동일한 기술이지만 다루는 도구의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 톱을 다루는 목수지만 톱의 종류나 작업에 따라 나뉘는 경우이다. 3유형은 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이 적용되는 기물이나 재료에 따라, 예를 들어 마경장이 두석마경장(豆錫磨鏡匠), 정철마경장(正鐵磨鏡匠) 등으로 나뉘는 경우이다. 4유형은 기물을 제작할 때 기물 세부 부속의 제작 분업에 따라 나뉘는 경우이다.[65]

은입사장이 소속된 도감 대다수는 국장도감이었다. 은입사장이 소속된 방에서는 주로 책보(冊寶)와 관련한 의물을 제작했다. 은입사장은 주로 보인을 담는 외함인 보록과, 보록을 담는 외함인 호갑에 사용하는 철제자물쇠의 입사를 담당했다. 반면 은입사장이 존재하는 공역에서 입사장은 다른 작방에서 가마의 정철 입사 장식이나 그 외 철제 장식물의 입사 장식을 담당했다. 입사장과 은입사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던『순조국장도감의궤』(1835)의 1방과 3방 제작 도설로 둘을 비교하면 입사장과 은입사장은 도감 내에서 각기 다른 입사 업무를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 도감 내에서도 나무 기물을 제작하는 소

63 김세린, 2019b,「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3~163.

64 은입사장이 기록된 도감의궤는『正祖國葬都監儀軌』(1800),『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1821),『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1830),『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1843),『憲宗國葬都監儀軌』(1849),『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1857),『哲宗國葬都監儀軌』(1865),『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1892),『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1898),『純明妃國葬都監儀軌』(1904),『純宗純貞皇后嘉禮都監儀軌』(1906)가 있다.

65 김세린, 2019b, 앞의 논문, pp.170~172.

표 7 『순조국장도감의궤』(1835) 입사장, 은입사장 담당 의물 도설과 예시 유물

작방	입사장 담당 직무	관련 도설	예시 유물
1방 입사장	대여, 평교자, 윤여 정철 입사 장식		
		대여전후도	연(輦)의 입사 장식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3방 은입사장	시보호갑 입사 장식, 보록호갑 쇄약시구 입사 장식		
		시보호갑	순조 금보 보록 자물쇠와 열쇠 (19세기, 국립고궁박물관)

목장(小木匠)이나 기물에 가죽을 씌우는 과피장(裹皮匠) 등 제작 기물과 분야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지 않고 단일 장색을 유지하는 사례도 여럿이다. 입사장 역시 은입사장으로 나뉘지 않고 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례도 있어, 공역에서의 작업량, 기간, 제작 기물의 작업 공정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분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도감에서 입사장의 작업은 기물과 장식을 모두 담당하거나, 장식만을 담당하거나, 장식만 담당한 경우에 기물에 따라 적용되는 입사의 세부 기법에 따라 작업 연관성이 높은 다른 장색과 분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이는 제작하는 기물의 종류와 재료, 장식, 사용자의 신분에 따른 시문 기법의 위계, 재료 수급, 인력 차출 상황, 기물의 제작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도감 내 입사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예품 제작 공역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 종사했던 입사장은 현재 잘 알려진 왕실공예품은 물론 군에서 사용되는 각종 공예품까지 해당 관청에 소속되어 다양한 성격을 지닌 공예품의 입사시문을 진행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소속된 인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기물 제작이 아닌 장식 시문 기술을 근간으로 한 분야의 관장 편제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필수적이고 쓰임이 넓었던 기술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생산과 정밀한 품질의 공예품 제작을 위해 장인 기술의 전문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직능을 법전에 반영해 상시 운영했다. 고려시대까지 관장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입사장의 편제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입사공예품을 사용하는 관청과 군영에 입사장을 배치하고, 제작 마감 기한이 촉박해 평소보다 세밀한 분업과 협업이 전개되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을 입사장, 은입사장으로 나누어 공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제작 상황과 보유 기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장인을 배치해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체제의 운영은 장인의 손기술로 모든 공예품을 제작해야 했던 근대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논문은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장인의 역할과 직무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작되는 공예품과 분야의 특성, 재료 및 인력 수급 등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관영수공업 정책의 틀 안에서 장인의 기술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공예품 구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의궤에 기록된 재료와 도구, 소수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관장과 사장의 기록을 더해 기술 문화를 분석한다면 조선시대 공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또는 복원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공예 기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2019)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부분을 확대·보강했으며, 학위논문에서 범한 오류도 본 논문을 통해 바로잡았다.

참고문헌

- 『光海君尊崇都監儀軌』
- 『經國大典』
- 『高麗史』
- 『大典續錄』
- 『大典通編』
- 『大典會通』
- 『萬機要覽』
- 『三國史記』
- 『三峯集』
- 『宣祖懿仁王后恭聖王后尊號都監儀軌』
-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 『昭顯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 『純祖國葬都監儀軌』
- 『承政院日記』
- 『御營廳謄錄』
- 『御營廳舊式例』
- 『六典條例』
- 『元史』
- 『典錄通考』
- 『莊烈王后祔廟都監儀軌』
- 『正祖國葬都監儀軌』
- 『朝鮮王朝實錄』
- 『孝宗加上謚號都監儀軌』
-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 『孝宗世子冊禮都監儀軌』
- 『訓局謄錄』

- 국립고궁박물관, 2010, 『조선왕실의 어보 2』.
- 국립고궁박물관, 2005, 『조선왕실의 가마』.
- 김세린, 2017, 「조선시대 입사장의 역할과 작업 범주의 재해석」, 『무형유산』 3, 국립무형유산원, pp.245~271.
- 김세린, 2019a, 「고려시대 입사공예품의 장인과 기술」, 『한국중세고고학』 5, 한국중세고고학회, pp.55~59.
- 김세린, 2019b,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정, 변지선, 2008, 『입사장』, 민속원.

참고문헌

- 남경숙, 2005, 『조각장』, 피아.
- 이선진, 2013, 「조선 후기 철제 입사 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희, 1998,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희, 1999, 「조선 후기 흉례도감의 장인 연구」, 『미술사논단』 8, 한국미술연구소, pp.181~212.
- 장경희, 2013,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 최공호, 1992, 「조선 초기의 공예정책과 그 이념」, 『미술사학연구』 194·195, 한국미술사학회, pp.77~88.
- 최공호, 2018,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pp.115~138.
- 최응천, 2016, 『한눈에 보는 입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www.iha.go.kr/service/index.nihc.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www.gogung.go.kr.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2, June 2021, pp.216~239.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2.216

Joined in the government-owned handicraft indus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Job type and role

KIM Serine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Culture,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erine0422@hanmail.net

Abstract

Inlay (入絲), a poetic technique of digging grooves in the surface of crafts and decorating them with metal materials, was used throughout the royal daily routines, ceremonies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government-owned handicraft industry in the Joseon Dynasty was composed of craftsmen belonging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was operated mainly by government-owned craftsmen. The inlay craftsman was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was in charge of inlay poetry for crafts.

The current records of Korean inlay craftsmen are concentrated in the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In the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the government offices of inlay craftsmen can be divided into Kongjo (工造), Sangeuiwon (尙衣院), and the military. Here the election of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for airspace is added. The government offices and military inlay craftsmen who use inlay crafts are assigned, and the inlay craftsmen are placed separately in the temporary office where the fine division of labor is developed. It can be made by utilizing craftsmen. The operation of these production systems was indispensable in pre-modern Korean society, where crafts had to be produced by han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roles and job types of craftsmen in the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inlay craftsmen. Although the details appli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materials of the field, labor supply and demand, etc. are different, Korea pursued crafts for various purposes through craftsmanship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asic state-owned handicraft policy . The institutional equipment for implementation was almost common. We believe that adding and analyzing some literature records and relics will help us to study the crafts of the Joseon era in more detail.

Keywords Metal inlay (入絲), Metal inlay craftsman (入絲匠), Silver inlaid craftsman (銀入絲匠), Central government craftsman (京工匠), Government office handicraft (官營手工業)

Received 2021. 03. 31. • **Revised** 2021. 04. 27. • **Accepted** 2021. 05. 01.